

# 1999년 양계산업 결산

—양계산물 감산하여 대공황 탈피하자—

—본회 경영지도팀—

## I. 동향

지난 11월 21일은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한지 2년째가 되는 치욕을 상징하는 날이다.

IMF 체제이후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양계산물의 소비감소와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대부분의 양계농가들이 기존의 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다수 농가들이 사료공급을 받지 못해 생산성이 낮은 계군은 물론 생산성이 높은 계군까지도 강제환우와 함께 도태를 실시해 닭사육 수수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시작부터 4월말까지 산지에서의 육계가격은 생체 kg당 1,520원으로 높게 지속되었고, 같은기간 계란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1,042원으로 근자 최고 시세가 형성되었다.

불황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육용실용계와 산란실용계를 시작으로 급등되기 시작한 병아리값은 산지 육계값과 계란값의 폭등으로 이어져 양계산물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높은 시세가 지속되었고, 이때 다수의 양계인들은 뒤돌아볼 겨를이 없이 사육수수를 늘리는데 급급했으며, 특히 육용종계는 물론 산란실용계의 경우 IMF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계군

에 대하여 강제환우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결과 종계입식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닭고기와 계란이 생산되어 소비량을 앞지르게 되었고, 결국 1999년 하반기들어 양계산물 가격은 폭락세를 나타냈으며, 4/4분기들어 양계산업 전체가 대 공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II. 자료분석

### 1. 육계산업 결산

#### 가. 육용종계입식 현황

1996년 이후 육용종계입식은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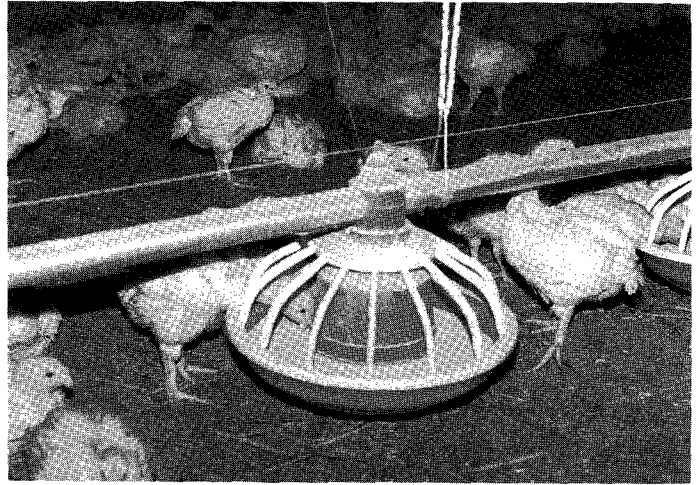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4/4분기들어 육용실용계 값이 고가에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은 IMF직후인 1998년들어 종계입식이 대폭 감소된 결과였다.

표1. 연도별 육용종계 입식현황

구 분	1996	1997	1998	1999.10월현재
입식수(수)	4,181,170	3,947,420	3,240,560	3,229,420
비 율(%)	100	94.4	77.5	77.2

그러나 병아리값이 고가에 지속되면서 강제환우를 통해 사육수수는 증가되었고, 또한 전

반적으로 육용종계의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병아리생산량은 종계입식에 걸맞지 않게 많은량이 생산되었다. 특히 최근 병아리생산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난 1/4분기 종계입식수수는 92만수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0%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2/4분기는 1백만수로 23%가 증가되었다.



#### 나. 육용실용계생산 잠재력

1999년 상반기 육용실용계 생산 잠재력은 1억7천만수로 전년동기 대비 20%가 감소되었다. 반면 3/4분기가 시작되면서 증가추세로 바뀌었고, 4/4분기는 9천3백만수, 2000년은 1/4분기는 9천8백만수로 전년 동기대비 10%, 21%가 각각 증가되었다.

이같은 증가는 2000년 2/4분기까지도 계속되었다.

#### 다. 종계사료생산실적

육용종계입식에 맞춰 종계사료 생산실적도 같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들어 9월말까지 종계사료생산실적은 19만3천톤으로 1998년동기 대비 12%가 증가되었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6만2천톤, 2/4분기 6만7천톤, 3/4분기 6만3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 14%, 21%가 증가됨에 따라 연초대비 연말쪽으로 오면서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 증가폭이 큰 것은 IMF의 영향 때문에 1998년의 사료생산량의 감소폭이 크데 따른 것이며, 1997년도 21만2천톤에 비해서는 오히려 9%가 적은 양이다.

#### 라. 육계사료생산실적

1998년도 육계사료생산실적은 1백22만8천톤으로 1997년에 비해 11%가 감소되었다. 반면 1999년 상반기는 69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3.5%가 증가되었고, 3/4분기는 40만1천톤으로 19%가 증가되었다. 3/4분기를 월별로 보면 7월 15만6천톤, 8월 12만7천톤, 9월 11만7천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6%, 20%, 23%가 증가되어 후반으로 오면서 증가폭은 더욱 커졌다.

#### 마. 종란입란 및 병아리 생산실적

본회에서 집계한 주간 입란 및 병아리 발생 실적에 의하면 11월 닭고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입란된 육용종란은 2천7백90만개였다.

이는 월별 닭고기소비 지수가 가장 높은 지난 7월중 닭고기생산을 대비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입란된 육용종란 3천1백46만개에 비해 불과 11%밖에 감소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2월 닭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칠 10월 3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입란된 육용종

란은 2천6백84만개로 11월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교할 때 3.8%의 감소에 그쳤으며, 2000년 1월들어 15일까지 영향을 미칠 11월 1~2주에 입란된 육용종란은 1천2백47만개로 12월 동기 출하물량 대비 8%가 감소되었다.

### 바. 닭고기 수입실적

IMF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되었던 수입 닭고기는 또다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검역기준으로 볼 때 1998년도에 수입된 닭고기는 1만1천7백28톤으로 97년도 1만8천2백14톤에 비해 35.6%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8년 하반기부터 급증되기 시작한 수입닭고기는 금년들어 10월말현재 3만7천2백23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66%가 증가되었다. 이같은 증가는 국내 닭갈비 시장을 잠식해 결국 하이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 2. 산란계

### 가. 산란종계입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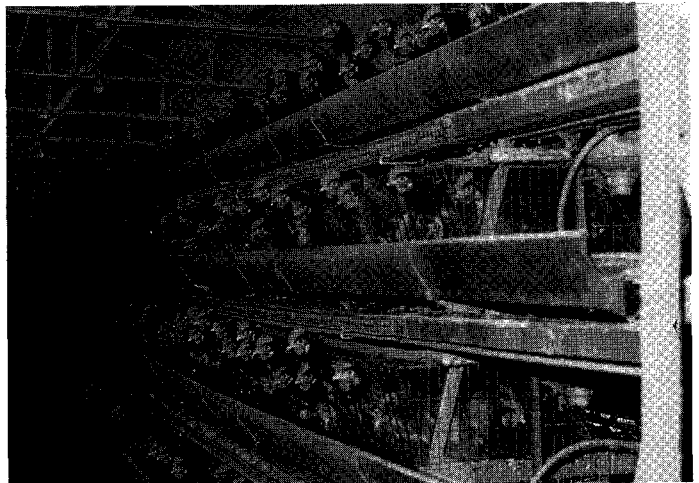
산란종계입식은 지난 1996년 55만수, 1997년 58만7천수, 1998년 55만5천수로 연도별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급증되기 시작한 산란종계 수입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되어 10월말현재 58만1천수가 입식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대비 27%가 증가된 것이다. 특히 4/4분기 산란실용계 생산에 가장 큰 영향으로 미칠 계군은 지난 1/4분기에 입식된 22만수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79%가 증가되었다.

### 나.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산란종계 입식수수에 영향을 받아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도 큰 폭 증가되었다. 1999년도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은 3천8백71만3천수로 1998년에 비해 1%의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이중 상반기는 1천6백68만수로 전년동기 대비 20%가 감소된 반면 하반기는 2천3만3천수로 26%가 증가되었다. 특히 이같은 증가는 2000년에도 계속되어 1/4분기 1천7백70만수로 27%가 증가되었고, 4-5월은 7백54만수로 36%가 증가되었다.

### 다. 산란실용계 입식수수

1998년 산란실용계 입식수수는 3천5백27만수로 1997년대비 10%가 감소되었다. 반면 1999년들어 10월말 현재 3천2백54만수가 입식되어 전년동기 대비 13%가 증가되었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9백34만수, 2/4분기 9백57만수, 3/4분기 1천54만수로 각각 4%, 37%, 12%가 증가되었다. 참고로 지난해 산란실용계는 월평균 2백93만수가 입식되어 금년 2/4분기가 시작되



면서 불황을 맞이했는데 하물며 금년의 경우 1/4분기 3백11만수, 2/4분기 3백19만수, 3/4분기 3백51만수로 월평균 산란실용계 입식수수는 급증되고 말았다.

**라. 육추사료생산실적**

1998년 육추사료 생산실적은 30만7천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가 감소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급증되기 시작한 육추사료는 9월말현재 27만1천톤으로 21%가 증가되었다. 이를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8만1천톤, 2/4분기와 3/4분기 각각 9만5천톤으로 10%, 15%, 39%가 각각 증가되었다. 특히 같은기간 초생추사료는 29%, 14%, 42%가 증가되었다.

**마. 산란사료생산실적**

IMF이후 산란계사육수수가 줄어 감소추이를 나타냈던 산란사료생산량이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1998년 산란사료생산실적은 1백65만8천톤으로 1997년대비 5%가 감소되었다.

반면 1999년들어 1/4분기 43만8천톤, 2/4분기 44만1천톤, 3/4분기 41만8천톤으로 4.4%, 6.0%, 5.6%가 각각 증가되었다. 이같은 증가는 병아리 입식수수를 비롯하여 육추사료생산실적을 감안할 때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산란계사육수수**

농림부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물론 마리수가 큰폭으로 증가되었다.

IMF의 영향을 받은 1998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나 1999년들어 또다시 증가가 시작되었다. 사육농가의 경우 1998년 1/4분기를 100으로 볼 때 1999년 3/4분기는 4.1%가 증가

되었으며, 같은기간 마리수는 8.6%가 증가됨에 따라 계절별 큰폭 감소되었던 예년의 추이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표2. 산란계 농가 및 사육수수**

구 분	98.1/4	2/4	3/4	4/4	99.1/4	2/4	3/4
농가수(호)	2,864	2,800	2,772	2,685	2,808	2,964	2,980
마리수(천수)	47,114	45,893	44,225	45,923	47,503	49,650	51,162
비율 (%)	농가수	100	97.7	96.7	98.0	103.4	104.1
	마리수	100	97.4	93.8	97.4	100.8	108.6

**Ⅲ. 전 망**

자유경제체제의 시장원리에서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경우 산지 양계산물 가격은 생산비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생물인 닭고기와 계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앞서 설명한 자료외에 소비지수 등 양계관련 제반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지에서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계산물 가격은 생산비보다 낮은 시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산물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소비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켜야 하며, 이와함께 현재 비축되어 있는 다량의 양계산물이 조기에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만약 이같은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업계는 불황의 소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끝으로 호황과 불황은 양계인들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양계**